

# ‘본립도생’... 非이자·非은행 비중 확대 ‘5-30전략’

(本立道生: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

(연간 순이익 해의 5%-비은행 30% 달성)

## 새해 새 전략... 쏘앗 (So What)

###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

“본립도생(本立道生)의 마음으로 계열사 10개 이상 보유한 명실상부한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자.”

지난 2017년 9월 취임한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73)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기본이 바로서면 길은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본립도생을 올해의 경영화두로 삼았다.

그는 “2019년은 BNK금융그룹이 글로벌 스탠더드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경영계획이 시작되는 원년이다”며 “올해 양질의 자산성장 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 ◆비은행·비이자 확대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의 올해 목표는 비은행·비이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수익이 늘어나고 있지만 은행(부산·경남은행)을 통한 수익이 대부분이라는 판단에서다.

BNK금융그룹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5939억원으로 전년(4863억원) 대비 530억원(10.9%) 증가했다. 다만 순이익 중 대부분은 부산은행(3731억원)과 경남은행(1698억원)으로 전체 수익의 91% 이상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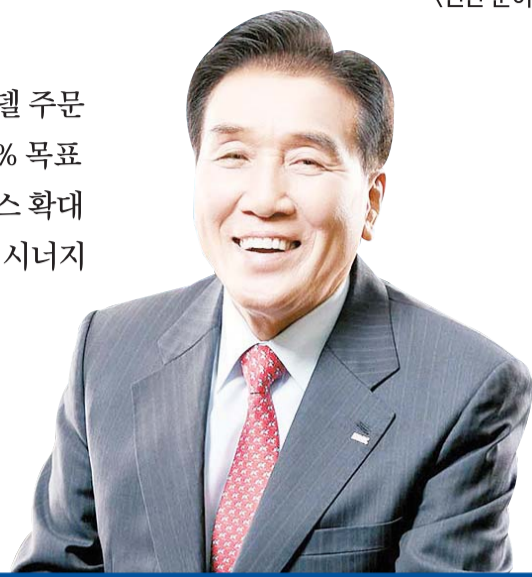
김 회장은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은행 중심으로 이자수익을 내는 과거의 모델을 넘어서 비은행부문, 비이자수익부문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연간 그룹 순이익 가운데 해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5% 이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은행 부문순이익 30% 달성이라는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앞서 ‘선 캐피탈-후 은행’의 해외진출 모델을 정립한 BNK금융그룹은 해외 시장을 공략할 때 캐피탈사를 먼저 진출시킨 후 은행을 후발주자로 보내 거점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BNK캐피탈은 지난 2015년 4월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라오스지점에 리스회사를 설립한 후 자동차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부산은행과 BNK투자증권 등이 복합

온·오프 경계없는 사업 모델 주문 모바일 앱 부문 순이익 30% 목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서비스 확대 계열사간 통합 플랫폼으로 시너지



점포 등을 통해 진출한다는 계획으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BNK캐피탈은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에 이어 4번째 해외 법인인 카자흐스탄 법인을 열었다. 특히 미얀마 소재 라오스 법인은 단기간에 흑자 전환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BNK금융그룹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으로 금융업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흐름에 맞춰 금융경쟁력 강화에 집

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개소한 ‘BNK 디지털혁신센터’를 통해 고객에게 가장 최적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을 활용해 그룹 차원의 디지털 사업모델과 금융 서비스를 연구 개발해 수익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이밖에도 계열사별로 흩어져 있는 모바일 플랫폼을 하나로 엮는 그룹 통합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 ◆건전성 관리로 질적 성장 체계 마련

김 회장은 또 다른 목표로 자산 건전성 관리를 꼽았다. 취임직후 지주회장이 겸직하던 부산은행장과 지주 및 부산은행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시도한 것에서 확장해 수익의 건전성도 함께 가져가겠다는 취지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산·울산·거제 등 BNK금융지주의 거점 지역 경기가 부진한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하면서 자산 건전성이 취약해졌다. 지난해 3분기 BNK금융그룹의 고정이하여신비율(부실채권비중)은 1.25%로, 상반기 말 기준 평균 0.56%인 4대시중은행(KB국민·신한·KEB하나·우리)과 0.93%인 국내 6개 지방은행들과 비교하면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셈이다.

이에 따라 김회장은 올해 BNK 자기자본이익률(ROE)을 10% 이상으로 잡고 건전성 관리를 통해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5년간 그룹차원의 선제적 건전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우량자산 위주로 질적 자산성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자 남영우-박재식-한이현 압축

오늘 인터뷰서 최종 후보 선정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 14일 남영우(65) 전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 박재식(61) 전 한국증권금융사장, 한이현(75) 전 국회의원 등 3명을 최종 인터뷰 대상자로 뽑았다.

이에 따라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관료·유관기관 출신 후보 2명과 민간 출신 후보 1명의 경합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사장은 행정고시 26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보험제도과장 및 국제기구과

장 등을, 한 전 의원은 행정고시 7회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거쳤다. 남영우 전 대표는 옛 동부상호신용금고와 건국상호신용금고 등을 거쳐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전무이사, 부사장을 역임했다.

저축은행중앙회 회추위는 오는 16일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최종 회장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는 오는 21일 회원사 투표로 결정된다.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홍민영 수습기자 hong93@

## KB금융-LG그룹, 디지털 新기술 주도 맞손

첫 과제 ‘블록체인 인프라 설계’ 새로운 디지털생태계 구축 기대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왼쪽)과 권영수 LG 부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마곡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에서 양해각서(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은 지난 14일 서울 마곡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그룹과 디지털 신기술 기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과 권영수 LG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측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사업적 역량을 토대로 고객에게 보다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 타 업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상품 및 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를 위해 양사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인프라 설계’를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컨소시엄형 사업의 경우 신뢰와 확장성이 중요한데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효

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담당자의 설명이다.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암호화폐의 사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KB금융과 LG그룹은 작년 10월부터 협업 모델 구체화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페이먼트, 보험 보상 자동화, 플랫폼 등의 사업과제를 도출했으며, 연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비스 모델 수립

및 사업화 추진, 신규 사업자와의 협업,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KB와 LG의 신기술 업무협약은 단순 기술 검증이 아닌 실제 고객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신한퓨처스랩’ 5기 스타트업 모집

신한금융그룹 내달 15일까지

신한금융그룹은 2019년 ‘신한퓨처스랩’ 5기 스타트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신한퓨처스랩은 신한금융이 2015년 5월 금융권 최초로 출범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작년 4기까지 총 61개 기업을 선발·육성하고 약 81억원의 자본투자를 진행했다.

이번 신한퓨처스랩 5기는 ‘직·간접 투자 확장’, ‘모집영역(소셜벤처) 확장’, ‘글로벌(베트남) 진출 지원 확장’의 3가지 확장을 키워드로 육성할 예정이다.

모집분야는 핀테크 기업 및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보안 등의 기술기업, 사물인터넷(IoT), 커머스, 콘텐츠 등 금융과 융합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생활플랫폼 기업이다. 이외에도 금융을 혁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예비창업팀 포함)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 소셜벤처(사회적기업) 및 베트남 진출에 비전을 가진 글로벌 진출팀도 선발할 예정이다.

신한퓨처스랩 5기에 선발된 기업들은 신한금융그룹사의 직접 지분투자자와 외부 투자자 연계, 데모데이를 통한 외부 투자 유치 등 다양한 경로의 투자 유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작년 11월 신한금융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인 유망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조원 규모로 조성한 성장지원펀드를 통한 투자 기회도 얻게 된다.

신한금융 계열사와 공동사업 추진, 신한금융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진출 지원, 내·외부 전문가 멘토링 및 최첨단 워킹스페이스 제공 등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신한퓨처스랩 5기의 서류접수는 다음달 15일까지다. /안상미 기자

## “맞춤형 보험, 온라인 보험몰서 가입하세요”

신한카드 온라인 보험몰 오픈

신한카드는 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맞는 추천 보험상품을 둘러보고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몰을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카드 온라인 보험몰은 다양한 온라인 보험상품의 보험료와 혜택은 물론 할인 행사까지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연령대·성별·관심사 등을 선택하면 내게 맞는 추천 보험 상품 리스트를 노출해 주며, 질병·상해, 자동차·운전, 연금·저축, 여행·골프, 어린이, 생활편의, 기타보험 등 7개 카테고리에 따라 9개 보험사의 27개 상품이 구비돼 있어 필

요에 따라서 다양한 보험상품을 둘러볼 수 있다.

또 재미있는 보험 쇼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선물하기와 공동구매 기능도 선보인다. 선물하기는 상대방의 휴대폰 전화 번호를 통해 보험을 선물할 수 있는 기능이며, 공동구매 기능은 보험을 공동으로 구매해 목표 인원을 달성할 시 보험료의 10%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서비스다.

한편 마이신한포인트는 신한카드, 신한FAN, 신한은행 솔(SOL), 신한금융투자 신한i알과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한플러스’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적립과 사용이 가능하다. /홍민영 수습기자

## KB국민은행 신보 등 보증기관 3곳 총 500억원 특별 출원

KB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3곳에 총 500억원을 특별출원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약 1조6000억원의 보증한도를 공급하고,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총 1조 70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신기술·신산업 관련 혁신성장기업이다.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100%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원한다. /안상미 기자